



(주)하림, 품질과 생산성에서 글로벌 리더기업 지향 올해 윤리경영 대내외 선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난다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육계농장에서 출발한 (주)하림(대표이사 김홍국)은 1986년 (주)하림식품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육계 계열화 업체 지정을 받았다.

이후 1990년 지금의 (주)하림을 설립, 1991년 동양 최대 규모의 낭산부화장과 도계장(1일 도계량 300,000수)을 준공했다. 그 당시 1일 30만수의 닭을 처리할 수 있는 도계장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1995년에는 공산품 규격으로만 알려진 KS마크를 농축산물중 국내 최초로 획득했으며, 이밖에도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도축장 HACCP 적용사업장 지정 등 (주)하림은 경영과 제품 품질에 대한 보강작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하림은 대한민국 우수공장 인증,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식품안전경영대상 2회연속 지속상 수상(도축장부문) 등을 통해 국내 육계산업의 리더 컴퍼니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5월 불의의 화재로 익산공장이 불에 타 창사 이래 최대의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2004년 6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도계공장 준공을 계기로 닭고기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현재 (주)하림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환경을 뛰어넘어 글로벌 리더기업이 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사가 동참하여 추진하고 있는 종합생산성(TP-Management)인데, 이는 경영계획과 실천부문의 매트릭스 활용으로 한 방향 정렬이 가능토록 발전하고 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하림의 지식정보 시스템 HABIS(Harim Business Intelligence System)는 최근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혁신을 위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BI(Business Intelligence : 경영관리업무 지식화) 시스템이다.

BI시스템은 경영의 전 영역에서 관리하고 분석해야 하는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정형화된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가공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하림은 HABIS와 SCM(수급)을 통해 시스템 경영을 견고히 하면 기존 업무방식은 단순화되고 불필요함이 대폭 개선되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하림 본사 전경



▶BI 프로젝트 팀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10일 HABIS가 그룹웨어를 통해 전사 임직원들에게 공개됐다.

-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